

전도서의 일상과 노동의 관점

— 전도서 2:18-26을 중심으로 —

김순영*

1. 들어가는 말

전도서의 새로운 이해는 성경 본문 원어의 문자적 해석의 새로운 강조에서 비롯된 종교개혁으로부터 출현했다. 삶의 모든 영역들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제사장적 소명에 부합하는 창조 교리의 강력한 회복이 있었다. 이 때문에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코헬렛의 태도에 대한 재평가는 루터에게서 또렷하다.¹⁾ 무엇보다 구약의 지혜서는 구원 역사보다는 창조 질서의 삶의 실천적 측면을 제시한다. 그중 전도서는 창조와 우주 질서의 의미를 깨우치고, 삶의 가장 구체적인 장소, 곧 복잡한 시장과 거리에서, 광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경외’(12:13)를 깨우치는 책이다. 때문에 보편적 인간의 수고와 노동, 일상의 문제를 논하는 전도서는 구속과 언약을 강조하는 거룩한 이름 여호와가 아니라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한 보편적인 명칭 ‘엘로힘’을 강조한다. 노동은 창조자 하나님을 닮은 인류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다. 땅에 충만하여 땅을 돌보아야 하는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의 선물로 부여되었지만, 타락의 영향 때문에 노동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인식한 전도서의 저

* 백석대학교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한영대학교 구약학 초빙교수. khanna69@hanmail.net.

1) Craig G. Bartholomew, *Reading Ecclesiastes: Old Testament Exegesis and Hermeneutical Theory*, Analecta Biblica 139 (Rom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8), 38.

자 ‘코헬렛(קֹהֶלֶת)’(1:1; 12:9-12)²⁾은 자신이 관찰한 세상사를 ‘헤벨(הֶבֶל)’로 판단하여 그의 가르침을 시작하고 끝맺음하는 모토로 삼았다(1:2; 12:8).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1:2)로 시작된 말은 일상과 노동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시작과 끝으로 이어지는 모든 인간사의 양극적 현실과 역설의 예리한 통찰이다.

반면에 코헬렛은 인류가 먹고 마시고 노동으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며(2:24; 5:18[17]; 9:9), 죽음 이후에는 계획도, 일도, 지혜도, 지식도, 없으니 힘을 다해 일할 것을 권한다(9:10). 하지만 그는 위대한 업적들조차 헛되어 바람 잡는 일(2:4-11)이고, 인간의 모든 수고는 이익 없이 헛될 뿐이며(2:18-23), 아무런 목적 없이 공허하게 끝날 뿐임을(4:8) 거침없이 냉철하게 말한다. 이 때문에 필자는 전도서의 모토인 ‘헤벨’ 구절(1:2)과 주제 질문(1:3)에 연결된 노동 관련 본문들 중 2:18-26을 의미단락으로 선택하여 반복 어휘 ‘노동’(‘아말[עֲמָל]’)과 ‘이득’(‘이트론[יִתְרוֹן]’) 문맥에 나타난 수사학적인 의도를 살피려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첨예한 신학적 이슈나 번역 문제를 조사하여 밝히는 것이 아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인들의 노동 이해와 전도서 이해 사이에, 상관성 있는 이해의 폭이 협소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또 그리스도인의 노동 현장과 신앙을 연결하는 신학적인 성찰이 부족하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하루도 노동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삶의 현실에서, 노동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삶의 일상에서, 전도서 2:18-26의 본문 연구를 통해 신앙을 증거하고 힘을 얻는 유기적인 관계의 신학적인 토대를 찾아보며 노동에 대한 성찰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함이다.

2) 전도서의 히브리 성경 제목 ‘코헬렛’은 책 전체에서 7회 등장하는데(1:1, 2, 12; 7:27; 12:8, 9, 10), 자료들을 ‘수집하다’, 사람들을 ‘소집하다’라는 동사 ‘카할(קָחַ)’의 여성, 단수, 분사형이다. ‘코헬렛’을 “전도자”(『개역개정』, 『새번역』)로 번역하지만, 회중이나 공동체를 소집하는 사람 또는 회중의 인도자를 뜻한다. 때문에 개별적인 직무와 관련된 명사로 취급되지만, 고유한 이름으로 읽기도 한다. 왜냐하면 포로 후기 본문에서 여성분사형이 가문의 이름으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코헬렛’처럼 ‘소페렛’ 자손(스 2:55; 느 7:57), ‘포케렛’ 핫즈바임 자손(스 2:57; 느 7:59) 등이 좋은 예다. 코헬렛이 일반명사인지 고유명사인지 논쟁이 있었을 만큼 저자 코헬렛의 이름은 수수께끼처럼 독특하고 이상한 이름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1:1(표제절)과 12:9-14(끝맺음말)의 상호연관성 안에서 전도서의 저자 ‘코헬렛’은 고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르치고, 잠언들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기록하고 정리한 지혜 선생이었음을 본문 스스로 밝히고 있다. 전도서 저자 ‘코헬렛’과 관련된 논의는 김순영, 『열셋말로 읽는 전도서』, 한국구약총서 20 (용인: 프리칭아카데미, 2011), 69-83을 보라.

2. 인류의 온갖 노동과 연결된 주제와 주제 질문(1:2-3)

2.1. 모든 것은 ‘헤벨’이다

책을 시작하고 끝맺는 코헬렛의 ‘헤벨’ 판단(1:2; 12:8)은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인류의 모든 수고(1:3)를 묻는 질문과 함께 코헬렛의 관심사와 주제를 집약한 말이다. 전도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1:2)라는 선언은 성실한 노동을 통해 소박한 일상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든, 권력과 부의 축적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이든, 그가 누구든 당혹스럽게 만든다. 삶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신속히 접게 하는 혹독한 말이다. 침멀리(W. Zimmerli)의 말대로 “전도서는 가시 박힌 책이다.”³⁾ 그러나 ‘헤벨’ 판단은 삶의 다양성과 모호하고 역설적인 삶의 문제들에 꼭 들어맞는 말이다.

‘헤벨(הֶבֶל)’은 전도서의 냉철한 성격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어휘다. ‘헤벨’의 사전적 문자적 의미는 숨(호흡), 수증기, 바람, 안개다. 구약에서 단지 세 차례만 문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사 57:13; 시 62:9; 잠 21:6). 구약 지혜문헌에서 무(nothingness), 수증기(vapour), 공허(void, empty), 무의미함(meaningless), 가치없음(worthless), 무익함(futile), 부패하기 쉬움(perishableness) 등의 뜻으로서,⁴⁾ 명사적 또는 동사적인 용례를 포함하여 구약에서 모두 75회 은유적으로 사용되었고 전도서에서 38회 발견된다.⁵⁾ 때문에 전도서를 ‘헤벨’의 책이라고 규정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헤벨’ 의미의 다차원적인 특징은 주석가들에 의해 문맥에 따라 서로 달리 해석되고 수용되었다. “불

3) 차준희, “코헬렛은 안티페미니스트인가: 전도서 7장 25-29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0:2 (2014), 127에서 재인용. 침멀리(W. Zimmerli)의 이 표현은 전도서의 끝맺음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12:11, 『개역개정』)라는 말에 대한 평가다.

4) BDB, 210; NIDOTTE, 1003-6; Michael V. Fox, *A Time to Tear Down & A Time to Build Up* (Grand Rapids: Eerdmans, 1999), 27-49. 팍스(Michael V. Fox)는 구약에서 사용된 ‘헤벨’의 미와 코헬렛이 어떻게 ‘헤벨’을 사용하는가를 광범위하게 소개한다.

5) NIDOTTE, 1005. ‘헤벨’의 다중적인 의미들은 구약 본문들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Michael V. Fox, *A Time to Tear Down & A Time to Build Up*, 27-35에서 잘 요약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유는 언어학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고 비언어적인 영역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사고와 행동과 연계관계를 갖기 때문에 수사학적인 표현의 핵심이다. 문제는 전도서 본문이 외부적 환경을 예측할 만한 역사적 상황이 생략되었다는 데 있다. 때문에 은유와 상징성이 높은 모호한 ‘헤벨’ 의미는 문맥과 다른 본문들과의 교통이라는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합리”, “부조리”, “허무”, “무익함”, “덧없음”, “무상함”, “이해할 수 없음(수 수께끼 같은)”, “아이러니” 등으로 표현되어 지금까지 가장 우세한 뜻인 “헛됨”(vanity)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다차원적이고 독특한 단어 ‘헤벨’의 잦은 반복 외에도, 전도서에는 책 전체 분량(12장)에 견주어 다른 구약의 책들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같은 단어의 반복이 많다. 적어도 5회 이상 나타나는 25개의 히브리어 어근들이 있으며 대체로 30회 이상 등장한다.⁶⁾ 코헬렛이 즐겨 사용하는 ‘행하다’(עָשָׂה), ‘지혜’(חָכְמָה), ‘지혜로운’(חָכָם), ‘어리석은’(סָכָל), ‘노동’(עָמַל), ‘좋은’(טוֹב), ‘즐거움’(שְׂמֵחָה), ‘시간’(עֵת), ‘보다’(רָאָה), ‘태양’(שֶׁמֶשׁ), ‘악’(רָעָה), ‘떡다’(אָכַל), ‘유익’(יִתְרוֹן), ‘바람’(רוּחַ), ‘죽다’(מוֹת) 등은⁷⁾ 유달리 자주 반복되어 모호한 단락들을 이해하는 열쇳말로써 본문이해를 돕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열쇳말들 중 인간의 수고와 유익의 관계를 의문시하여 회의적이고 염세적인 사상가로 내몰리게 된 코헬렛의 가장 유력한 말이 ‘헤벨’이다. 이 말은 인간 경험의 총체성을 지시하는 주어 ‘그 모든 것’(‘하כל[הַכֹּל])’에 대한 판단이다. ‘헤벨’ 구문을 분절(delimitation of clauses)하면, ‘헤벨’의 농도는 더 선명하다.

הֵבֵל הַבָּלִים	1:2a	덧없고 덧없다 (최상급 관용구)
אָמַר קֹהֶלֶת	b	코헬렛이 말했다
הֵבֵל הַבָּלִים	c	덧없고 덧없다 (최상급 관용구)
הַכֹּל הֵבֵל	d	모든 것이 덧없다

해설자를 자처하는 ‘코헬렛이 말했다’를 중심으로 최상급 관용어구, ‘하벨 하발림(הֵבֵל הַבָּלִים)’⁸⁾이 반복된다. 시작과 끝에 배치된 ‘헤벨’ 경구(1:2와 12:8)의 마주보는 틀 구성은 전도서의 모토(1:2)로서 뒤따르는 주제 질문

6) M. Goshen-Gottstein, “Tanakh Theology: The Religion of the Old Testament and the Place of Jewish Biblical Theology”, P. D. Miller, P. D. Hanson and S. D. McBride, eds., *Ancient Israelite Religion: Essays in Honor of Frank Moore Cross* (Philadelphia: Fortress, 1987), 617-644.

7) Roland E. Murphy, 『전도서』, WBC 성경주석 23A, 김귀탁 역 (서울: 솔로몬, 2008), 38-39에서 재인용.

8) James L. Crenshaw, *Ecclesiastes* (London: SCM, 1988), 56. 가장 아름다운 노래(노래들 중의 노래)로 번역된 ‘쉬르 핫쉬림(שִׁיר הַשִּׁירִים)’, 지성소(거룩함 중의 거룩함)를 뜻하는 ‘코데쉬 코다셈’(קֹדֶשׁ קְדָשִׁים, 출 29:37), 가장 높은 하늘(하늘 중의 하늘)을 표현한 ‘쉐메 핫사마임’(שְׁמַי הַשָּׁמַיִם, 왕상 8:27) 등이 같은 용례다.

(1:3)과 연결된다.⁹⁾ 인류의 총체적인 ‘모든 수고(노동)’에 관심을 집약시킨 수사학적인 질문,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1:3) 그리고 ‘모든 것이 헤벨이다’(1:2d)라는 말에서 ‘모든 것’(כֹּל)은 연결어휘로서 두 절을 분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모든 것’(כֹּל) 역시 약 70회 반복된다. 이것은 구약에서 모든 세상이나 우주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지만(렘 10:16; 51:19; 시 103:19; 119:91; 145:9; 왕상 29:12), 현재의 문맥에서 ‘모든 수고’는 크뤼거(T. Krüger)의 주장대로 ‘해 아래’로 한정되므로 인간이 직면하는 세상의 현실을 일컫는 말이다.¹⁰⁾ 이것은 하늘 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해 아래’ 인간의 수고로운 노동과 관련된 모든 현상들을 일컫는다.

이 때문에 ‘헤벨’은 인간의 본질 이해와 해 아래 모든 일의 부조리한 현실에서 떼어낼 수 없다. 엘룰(J. Ellul)은 노동과 ‘부조리’(‘헤벨’)의 관계를 창세기 맥락에서 살폈다. 코헬렛이 인류의 모든 수고와 ‘헤벨’의 관계를 설정하여 창세기의 가인의 형제 “아벨”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인의 형제이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אָבֶל, 창 4:2)이 곧 ‘헤벨’(אָבֶל)이기 때문이다. 아벨의 문자적 의미는 안개, 호흡, 수증기다. 엘룰의 말대로 이름이 비극적인 짧은 삶을 예고했다. 소멸될 이름 “아벨”은 희생제물을 드린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부조리하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인류의 거울이다. 인류는 죽음, 타인의 악의, 수고를 피할 수 없다.¹¹⁾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덧없이 사라질 존재로 선고된 아벨의 후예다. 이러한 맥락에서 ‘헤벨’ 의미와 보편적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와 전도서의 연결은 중요하다. 도르-샤브(Ethan Dor-shave)와 옥든(G. S. Ogden)의 주장도 아벨의 삶에서 강조된 것은 삶의 덧없음이다. 공중에서 사라질 수증기였지만 그의 삶의 부르심은 완수되었다.¹²⁾ 이처럼 ‘헤벨’의

9) Leo G. Perdue, *Wisdom Literature: A Theological History*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2007), 190. 퍼듀(Leo G. Perdue)가 제시한 전도서 전체의 수사학적인 구조는 주제와 주제 질문을 중심으로 책의 시작과 끝은 물론이고 인류와 우주의 반복적인 질서의 종말의 구성이 한 눈에 보인다. 물론 전도서의 문학적 구성과 관련된 논의는 통일성 문제와 함께 지금까지도 다양한 제안들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눈에 띄는 1:2와 12:8의 ‘헤벨’ 경구와 1:3의 질문의 핵심 단어의 반복적인 사용 때문에 책 전체의 주제와 주제 질문으로 수용된 분위기다. 전도서의 다양한 구조 소개는 현창학, 『구약 지혜서 연구』(수원: 합신대학원 출판부, 2009), 157-164를 보라.

10) Tomas Krüger, *Qoheleth*, Hermeneia, O. C. Dean Jr., trans. (Minneapolis: Fortress, 2004), 4.

11) J. Ellul, 『존재의 이유』, 박건택 역 (서울: 규장, 2005), 21.

12) Ethan Dor-shave, “Ecclesiastes, Fleeting and Timeless”, *Jewish Bible Quarterly* 36 (2008), 217; Graham S. Ogden, *Qoheleth* (Sheffield: JSOT, 1987), 21.

미는 본질적으로 “순간”(temporary)에 강조점이 있게 된다.¹³⁾ 그러므로 ‘헤벨’은 부정적이거나 경멸적이거나 염세적인 뜻을 목표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일시성에 주목시키려는 코헬렛의 숨은 의도를 반영한 말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헤벨’(1:2)이라는 판단에 따른 핵심 질문(1:3)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2.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코헬렛이 자신의 담론을 펼치기 전에 질문으로 독자에게 말 걸기를 시도한다. 이것은 ‘헤벨’ 선언만큼 도전적이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1:3)라는 말은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다. 독자를 밀어붙여 자신의 담론을 논증하려는 수사학적인 의도성이 농후한 말이다. 이러한 수사학적인 질문은 “즉각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아니라 독자를 환기시켜 말하는 이의 담화에 끌어 들여 관심을 갖게 만든다.”¹⁴⁾ 이 질문은 2:22에서 좀 더 강화된 형태로 반복되며, 전도서 전체에서 저자의 담론 전개를 위해 자주 사용된다.

무엇보다 주제 질문의 “수고”, “노동”, “노력”, “일”, “고생”, “무거운 짐”을 뜻하는 ‘아말(אִמַּל)’도 자주 반복되며(2:10, 11, 18, 19, 20, 21, 22, 24; 3:13; 4:4, 6, 8, 9; 5:15[14], 18-19[17-18]; 6:7; 8:15; 10:15), 읊기(10회)와 시편(14회)을 제외하고 구약 전체에서 희귀한 말이다.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아말’은 모든 수고로운 일로서 삶의 온갖 기획을 일컫는 말이다.¹⁵⁾ 지혜문헌 밖에서 사용된 예는 이스라엘 후손이 이집트에서 억압적이고 폭력적이며 노예적인 노동을 서술한 맥락에서 “고통과 신고와 압제”(『개역개정』, 신 26:7)로 표현되었고, “신고”로 번역된 말이 ‘아말’이다. 또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인류의 일상의 투쟁을 지칭한”¹⁶⁾ 말이다. 그러므로 ‘아말’은 해 아래 사는

13) Daniel C. Fredericks and Daniel J. Estes, *Ecclesiastes & The Song of Songs*, Apollos Old Testament Commentary (Nottingham: Apollos, 2010), 50-51.

14) 최창모, “전도서의 수사적 질문과 헤벨의 상징적 기능에 관한 연구”, 『신학사상』 104 (1999), 112-145를 보라.

15) *NIDOTTE*, 435-436. 전도서 이외의 책들에서도 고생스러움이 동반된 어려움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예컨대 시 127:2(수고의 떡), 창 41:51(내 모든 고난) 등의 표현이다. 이후 후대 성경 히브리어에서 단순히 ‘일’로 이해되기도 한다. R. N. Whybray, *Ecclesiastes*, OTG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7), 103. 이러한 해석 외에도 노동과 관련하여 “획득하다” 또는 “재산”, “소유물”의 뜻이라고 설명하는데(Michael V. Fox, *A Time to Tear Down & A Time to Build Up*, 99에서 재인용), 수고로운 노동과 노력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것은 최종 결과이기 때문에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16) C. L. Seow, *Ecclesiastes*, AB 18C (New York: Doubleday, 1997), 113.

인간의 갖가지 고생스러운 활동에 대한 코헬렛의 관심사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מַה־יִתְרוֹן לָאָדָם)라는 수사학적인 질문도 자주 반복될 뿐만 아니라¹⁷⁾ ‘이익’에 상응하는 ‘이트론(יִתְרוֹן)’ 역시 반복어휘(1:3; 2:11, 13[2회]; 3:9; 5:9[8], 16[15]; 7:12; 10:10, 11)로서 전도서 이해를 위한 열쇳말이다. 이것은 주로 경제적인 색채와 관련된 ‘과잉’, ‘잉여’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 노동을 통해 얻는 모든 것을 충칭한 말이다.¹⁸⁾ 또한 인간 활동의 지속적인 만족과 관련된 표현으로서 옥든은 코헬렛이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주장할 정도로¹⁹⁾ 전도서만의 독특한 말이다. 그러므로 노동의 유익을 묻는 이 질문은 노동을 통한 잉여적 가치와 만족이 무엇인가를 사유하고 성찰하도록 촉구한다.

이 질문의 또 다른 특징은 하늘 위가 아닌 ‘해 아래’(1:3; 2:11, 18, 19, 20, 22; 3:16; 4:1, 3, 7, 15; 5:13[12], 18[17]; 6:1, 12; 8:9, 15[2회], 17; 9:3, 6, 9[2회], 11, 13; 10:5)에 한정된 땅 위의 피조세계에 초점을 둔다. 이 표현도 성경의 저자들 중에서 유달리 코헬렛만 사용하는 독특한 관용구로서, 인간 경험의 보편성을 표현한 말이다.²⁰⁾ 초월적인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지상의 삶에 초점이 맞춰진다. 더군다나 해 아래 인류의 수고로움을 강조한 문법 구성이 독특하다. 코헬렛은 같은 어근의 동사와 명사 활용을 즐긴다. 히브리어 순서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직역하면, ‘사람에게 무슨 이익(יִתְרוֹן)이 있는가? 해 아래서 그가 수고하는(שִׁיעָמַל) 그의 온갖 수고에서(בְּכָל־עֲמָלוֹ)’라는 말이다. 요컨대 코헬렛이 제기한 질문의 핵심은 해 아래 사는 사람의 노동에 따른 지속적인 만족과 이익에 의문을 제기하고 두루 생각하기를 집요하게 요청한 것이다. 그 근거는 코헬렛이 노동과 이익의 관계를 약간 변형된 형태의 질문으로 반복한 것에 있다(아래 도표 참조).

17) Craig G. Bartholomew, *Ecclesiastes*,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107.

18) NIDOTTE, 572-573.

19) Graham S. Ogden, *Qoheleth*, 23.

20) David A. Hubbard, *Mastering the Old Testament: Ecclesiastes, Song of Solomon* (London: Word Publishing, 1991), 46; C. L. Seow, *Ecclesiastes*, 104-105. 주석가들은 대체로 ‘해 아래’ 구문을 헬라식의 표현방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아우(C. L. Seow)는 이 관용어구가 셈어 본문들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헬라식을 주장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다. ‘하늘 아래’(1:3; 2:3; 3:1)라는 표현 역시 인간의 보편적 경험과 현실을 총망라하는 ‘해 아래’에 대한 동의적이고 보충적인 의미로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었다.

תחת השמש	שִׁיעֵמֹל	לְאָדָם בְּכָל-עֵמָלוֹ	מֵה־יָתְרוֹן	1:3
תחת השמש	שֶׁהוּא עֹמֵל	לְאָדָם בְּכָל-עֵמָלוֹ וּבְרַעְיוֹן לְבוֹ	מֵה־תְּהִיָּה	2:22
	בְּאֲשֶׁר הוּא עֹמֵל	הָעוֹשֶׂה	מֵה־יָתְרוֹן	3:9
לְרוּחַ	שִׁיעֵמֹל	לוֹ	מֵה־יָתְרוֹן	5:16 [15]

여기서 노동과 이익은 인류를 총칭하는 반복 어휘 ‘사람’(‘아담[אָדָם]’, 49 회)과 관계 맺는다. 이것도 코헬렛의 관심이 하늘로부터의 계시가 아니라 사람과 세상에 있다는 뜻이다. 그는 죽음 너머의 저세상이 아니라 해 아래 지상 모든 일들의 총체성에 관심 갖고 사람들을 초대하여 성찰을 유도한다. 태양의 영향력 아래에 사는 사람은 오늘 비쳐오는 빛의 달콤함으로 유익을 얻지만(11:7), 때로는 한낮의 뜨거운 열기에 수고로운(1:3) 땀을 흘려야 하는 일상을 지속해간다. 코헬렛이 ‘헤벨’의 부정성과 긍정성을 함께 생각한 것처럼 해 아래 노동하는 인류의 수고로움과 양면성을 살폈다. 이러한 인류의 온갖 수고로운 노동과 그 이익의 관점이 2:18-26에서 좀 더 구체화된다.

3. 코헬렛, 해 아래 노동의 현실을 말하다

3.1. 사람의 온갖 노동은 ‘헤벨’이다(2:18-21)

‘해 아래 사람이 수고한 그의 모든 수고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1:3)라는 주제 질문은 앞서 밝혔듯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수사학적인 의도다. 코헬렛은 자주 질문을 제기하고 자신이 대답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의 첫 대답은 희망적이지 않고, 부정성이 한껏 묻어난 말이다. 그는 해 아래 ‘내가 수고한’ ‘온갖 나의 수고’를 내가 미워한다(2:18상)라는 말로 독자의 관심을 끌어들인다. 그의 독특한 1인칭 화법은²¹⁾ 자신의

21) 전도서에서 ‘내가 … 했다’라는 1인칭 화법은 이스라엘과 유대 지혜 자료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다. 때문에 전도서의 장르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며, 고대 근동의 문학형태의 관습을 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1인칭 화법의 관습은 주로 의인의 고통을 노래하는 시들, 염세주의 토론, 이집트인의 축제의 노래, 이집트의 왕의 유언, 묘비에 새긴 자전적인 전기들이다. 이것과 관련한 설명은 Leo G. Perdue, *Wisdom and Creation: The Theology of Wisdom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1994), 194-205를 참조하라. 이러한 통시적인 비교연구가 전도서의 1인칭 화법 연구에 필수적이라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대근동 문학양식 이해에 좋은 자료다.

경험과 관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책 전체의 주제(1:2; 12:8)와 주제 질문(1:3)에 긴밀하게 연결된 본문은 ‘헤벨’과 ‘기쁨’의 병행 관계를 약간의 변형된 형태로 7회 제시하는 거시구조(2:24-26; 3:12-13, 21-22; 5:18-20[17-19]; 8:15; 9:7-10; 11:7-10)의 첫 단락에 포함된다. 1인칭 화법으로 시작하여 ‘아말’과 ‘헤벨’ 반복으로 담론을 집약시킨 구성이다.

‘아말’	וְשָׂנְאוֹתַי אֲנִי אֶת־כָּל־עֲמָלִי שְׂאֲנִי עֲמַל ...	2:18
‘헤벨’	גְּמֻזָּה הֶבֶל ...	2:19
‘아말’	וְסִבּוֹתַי אֲנִי ... עַל כָּל־הָעֲמָל שֶׁעֲמַלְתִּי	2:20
‘아말-헤벨’	כִּי־יֵשׁ אָדָם שֶׁעֲמָלוֹ ... עֲמַל־בוֹ ... גְּמֻזָּה הֶבֶל	2:21
‘아말’	בְּכָל־עֲמָלוֹ ... שֶׁהוּא עֲמַל תַּחַת הַשָּׁמֶשׁ	2:22
‘헤벨’	גְּמֻזָּה הֶבֶל הוּא ...	2:23
먹고 마시는 것	שְׁיֹאכַל וְשָׂתָה וְהִרְאָה אֶת־נַפְשׁוֹ טוֹב בְּעֲמָלוֹ ...	2:24-
노동과 기쁨		25
‘헤벨’	גְּמֻזָּה הֶבֶל וְרֵעוֹת רוּחַ ...	2:26

1인칭 화법(2:18)은 앞 단락과 구별하여 새로운 단락을 알리는 언어적 표시로 작용한다. 동시에 앞 단락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는 코헬렛만의 말하기 방식은 이전 단락(2:1-11, 12-17)을 종결하는 2:17의 첫마디, ‘그래서 나는 그 생애를 미워한다’(וְשָׂנְאוֹתַי אֶת־הַחַיִּים)라는 말을 반영한다. 이유는 해 아래 수행된 ‘그 일’(הַמַּעֲשֶׂה)²²⁾이 괴로움이고 모두 ‘헤벨’이며 ‘바람 잡는 것’(רֵעוֹת רוּחַ)이라는 판단에서다(2:17).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개역개정』, 2:17)이라는 말도 코헬렛만의 독특한 구문으로서 6:9를 마지막으로 항상 ‘헤벨’과 병행적으로 사용되며, 책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는 문학적인 단위의 표시다. 또한 이것은 ‘헤벨’의 다의적 의미에 경계를 설정하여 의미를 보충하거나 제한한다.²³⁾ 더불어 앞선 담론을 종결하고,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언어적인 신호다. 이 구문은 책 전반부에서 7회 반복되는데(1:14; 2:11, 17, 26; 4:4, 16; 6:9), 2장의 ‘노동’ 관련 구절에서만 3회 반복될 정도로 노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다음 도표 참조).

22) 정관사(‘하[ה]’)가 접두된 ‘마아쎬(מַעֲשֶׂה)’는 일(work), 생산물(product)의 뜻이며, ‘수고’, ‘노동’을 나타내는 ‘아말’의 범주에 속한 어휘다.

23) 전도서에서 유명한 이 구문은 밀접하게 ‘헤벨’과 병행 관계로 표현되며(2:11, 17, 26; 4:4, 6; 6:9), ‘레우트(רֵעוּת)’ 역시 코헬렛만의 독특한 어휘로서 아람어의 ‘갈망’, ‘야망’(스 5:17; 7:18; 단 2:30; 7:28)이라는 말과 일치한다(C. L. Seow, *Ecclesiastes*, 121).

וְרַעוּת רוּחַ	הַבֵּל	וְהִנֵּה הַכֹּל	1:14
וְרַעוּת רוּחַ	הַבֵּל	וְהִנֵּה הַכֹּל	2:11
וְרַעוּת רוּחַ	הַבֵּל	כִּי־הַכֹּל	2:17
וְרַעוּת רוּחַ	הַבֵּל	גַּם־זֶה	2:26
וְרַעוּת רוּחַ	הַבֵּל	גַּם־זֶה	4:4
וְרַעֲיוֹן רוּחַ	הַבֵּל	כִּי־גַם־זֶה	4:16
וְרַעוּת רוּחַ	הַבֵּל	גַּם־זֶה	6:9

더군다나 앞 단락(1:12-17)은 ‘나는 코헬렛이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1:12)를 시작으로 솔로몬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솔로몬을 상기시킬 만한 쾌락과 위대한 업적들, 죽음 앞에서의 지혜와 어리석음의 ‘헤벨’을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묘사들이다(2:1-11, 12-17).²⁴⁾ 그러면 왜 코헬렛은 왕의 위대한 업적과 권력이 제공한 유익들을 의문시하고 인류의 수고로운 노동을 문제시했는가? 그것은 해 아래 행했던 ‘수고’의 이익을 자기 뒤를 이을 사람에게 남겨 주는 것 때문(2:18하)이라고 밝힌다.

그런데 코헬렛에게 심각한 문제가 더 있다. 그는 자기 뒤를 이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알겠는가?’(2:19상)라는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다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그리고 그는 장래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무지를 밝히고, 현실 각성의 말을 이어간다. ‘해 아래 내가 수고하고 지혜로 행한 나의 모든 수고를 그가 관리하니 이것 역시 헤벨이다’(2:19하)²⁵⁾라고 말한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무지의 각성과 불편한 현실에 대한 솔직한 발언이다. 이 말은 고대 이스라엘의 주류 지혜 전통의 관점을 비틀어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잠언의 지혜자는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의인이요, 선한 사람이 얻는다’(잠 13:21-22)라고 말하지만, 코헬렛은 현실에서 이 일이 어김없이 작동하지 않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이후 그는 좀 더 강한 어조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불편한 현실에 대해 내적인 불만을 토로한다(2:20-22).

코헬렛은 해 아래 사람의 ‘온갖 수고’에 절망감을 금할 길이 없음을 표명

24) 이 단락들은 열왕기상 3-10장의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 건축, 동방의 모든 사람과 이집트의 지혜를 능가하는 위대한 지혜, 3천개의 잠언, 천 다섯 편의 노래, 식물과 동물의 해박한 지식까지(왕상 4:29-34), 그리고 그가 소유한 은과 금을 비롯한 막대한 재산, 7백 명의 후궁, 3백 명의 첩(왕상 10:14-11:3)에 이르는 권력과 부를 상기시키는 내용이다.

25) ‘그가 관리하다’로 번역한 어근 ‘샬랏(שָׁלַט)’은 후대 본문들에서만 발견된다(5:19[18]; 6:2; 8:9; 느 5:15; 스 9:1; 시 119:133; 또는 성경 아람어 단 2:39; 3:27; 5:16; 6:25). 이것은 주전 5세기 페르시아 시대 재산 처분의 권리를 언급하는 법적인 표현으로 조사되었다(C. L. Seow, *Ecclesiastes*, 136; Michael V. Fox, *A Time to Tear Down & A Time to Build Up*, 187).

한다. ‘나는 내가 해아래 수고한 온갖 수고에 내 마음을 절망케 했던 것을 돌아보았다’(2:20)라는 그의 말은 두 가지 강조점을 반영한다. 먼저 ‘해 아래 내가 수고한 그 온갖 수고’라는 말에서 ‘아말’ 동사와 명사를 반복 사용하여 일의 고생스러움을 강조한다.

שְׁעַמְלָתִי תַחַת הַשָּׁמַיִם	עַל כָּל־הָעֵמָל	וְסִבּוֹתַי אֲנִי לְיֵאֵשׁ אֶת־לִבִּי	2:20
--------------------------------	------------------	---------------------------------------	------

또 하나, 그의 마음속에 솟구치는 절망감을 감추지 않는다. 자기 마음을 ‘절망하게 한 것을’(שָׁאֵל)26) 돌아본다는 것은 수고로움에 대한 마음의 착각들과 헛된 꿈에서 깨어나는 깨달음의 표현이다. 피엘형(שָׁאֵל) 부정사 구문(שָׁאֵל)은 희망을 꺾어버릴 정도의 절망이다. 팩스(M. Fox)는 “환멸을 느끼는 것”, “희망을 포기하는 것”으로 읽었다.27) 한 마디로 코헬렛은 사람의 온갖 수고로움에 대한 환멸을 강력하게 토로한 것이다. 이 환멸감에 힘을 가하는 말은 더 있다.

코헬렛은 짧은 일화를 소개한다. ‘누군가는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다해 수고하지만,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수고한 사람의 몫(חֵלֶק)28)을 차지하니 이것 역시 헤벨이며 너무 큰 악(רָעָה)이다’(2:21)라고 말한다. 여기서 코헬렛이 말하는 누군가 ‘한 사람’은 반드시 왕이나 왕의 가족을 언급하는 구문 구성은 아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다(כִּי־יֵשׁ אִדָּם). 프레더릭스(D. C. Fredericks)의 주장처럼 ‘어떤 사람’이 역사적인 솔로몬으로 동일시되는 코헬렛인지, 아니면 단지 문학적인 가공의 장치든지, 어쩌면 영광스러운 왕국을 둘로 쪼

26) ‘절망케 하다’(שָׁאֵל)의 피엘(강조능동) 부정사 구문은 유일하게 전도서에서만 발견된다(HALOT, 382). 전도서는 반복 어휘들이 많은 것이 특징인 반면,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는 단어 사용이 또 다른 특징이다.

27) Michael V. Fox, *A Time to Tear Down & A Time to Build Up*, 188.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접촉이 랍비 시대 언어에 잘 드러난 것으로 보고된다. 곧 히브리어의 아람어 차용을 말한 것인데 아람어 단어나 관용구들이 랍비 시대 히브리어에 스며들었다는 것이다. 히브리어 문법학자들은 에스더서, 느헤미야서, 역대기 등 주전 6세기(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기록된 성경의 문서들이 집중적인 아람어화 영향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특히 전도서의 아람어화(또는 “미쉬나화”)의 반영을 고대 페니키아의 잔재이거나 옛 지혜 철학의 문학 양식의 반영으로 보기도 한다. 이것과 관련된 연구는 Avi Hurvitz 외, 『성서 시대와 성서 이후 시대의 히브리어 연구』, 박미섭 역 (서울: 한들, 1999)을 참고하라.

28) “몫”(『개역개정』)으로 번역된 ‘헬렉(חֵלֶק)’은 ‘나뉘진 몫’(share of property)을 뜻한다. 이 어휘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할당된 장소(space)를 나타내는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부분 또는 일부를 뜻하는 것으로서 영구적인 획득과는 반대되는 일시적인 획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는 일시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이득’(이트론)과 구별된 이 어휘와 관련된 다양한 구약한 용례들의 설명은 Michael V. Fox, *A Time to Tear Down & A Time to Build Up*, 109-111을 보라.

개 전쟁하도록 분열시킨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암시한 것이든지(왕상 11:41-12:24; 14:29-30)²⁹⁾ 누구라고 지목하지 않은 불특정한 사람이다. 특정한 누구를 지목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아우(C. L. Seow)의 의견대로 코헬렛이 관찰한 어떤 특정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인간 조건에 대한 보편적인 반성을 소개한 하나의 일화다.³⁰⁾ 코헬렛은 이와 같은 일이 일회적이지 않고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듯 이후에도 비슷한 일화를 반복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요함과 존귀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누리려는 것을 보았다’면서 이것 역시 ‘악’(רָעָה)이고 ‘악한 고통’(עֲוֹן וְכָל)이다(6:1-2)라고 말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코헬렛은 일화를 소개하여 불쾌한 감정을 과감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수고의 정당한 대가가 엉뚱한 누군가의 몫으로 할당되는 것이 불편하다. 이유는 분명하다. 누군가 고생스러운 수고로 성공을 일궈지만, 그의 성취를 일하지 않은 타인에게 남겨주니 이것도 ‘헤벨’이고, “악”(『개역개정』; 『새번역』: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코헬렛도 잠언의 ‘지혜자들’(חֲכָמִים, 잠 22:17; 24:23)처럼 지혜자 집단에 속한 사람이니(12:9, 11) 고생스러운 일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는 것과 게으른 사람에게 빈곤과 궁핍의 괴로움이 도래한다는(잠 6:6-11) 전통적인 지혜 교훈에 익숙했을 것이다. 그러나 코헬렛은 보상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현실 세계의 불공정한 사태를 보며 괴로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3.2. 노동과 이득에 대한 반성적 성찰(2:22-23)

코헬렛은 또 질문한다. 해 아래 수고하는 사람의 온갖 수고에서 그리고 ‘그의 마음의 열망에서’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2:22)? 이것도 이미 답을 가진 수사학적인 질문이다. 그의 바라봄에서 비롯된 비판적 성찰은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제기되고 집약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코헬렛의 수사학적인 질문의 힘은 “책의 구조를 디자인하고, 오래된 전제들의 해체로부터 새로운 전제들의 발견과 재통합으로 안내한다.”³¹⁾ 반복적인 이 질문에서 눈여겨 볼 것이 있다. ‘그의 마음의 열망에서’(בְּרֵעֵיוֹן לִבּוֹ)라는

29) Daniel C. Fredericks and Daniel J. Estes, *Ecclesiastes & The Song of Songs*, 99-100.

30) C. L. Seow, *Ecclesiastes*, 137. 코헬렛의 인식론적 근거는 관찰이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상황들로부터 일반화시키는 그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예컨대, ‘내가 해 아래에서 … 보았다’(1:14; 2:1, 12; 3:10, 16, 22; 4:1, 4; 5:18[17]; 6:1; 7:15; 8:9, 17; 9:13)라는 표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31) Raymond E. Johnson, “The Rhetorical Question as a Literary Device in Ecclesiastes”, Ph.D. Dissertation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86), 264-270.

부사구가 새롭게 끼어든다. 이 말은 ‘그의 온갖 노동에서’(בְּכָל-עֲמָלָו)와 함께 구문법적인 평행관계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 ‘그의 마음의 열망에서’ 얻어지는 이득, 곧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다.³²⁾ 전도서의 주제 질문(1:3)을 반복한 셈이지만,³³⁾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강렬하다. 이처럼 다시 ‘이득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해 아래 사는 인류의 노동과 ‘이득’(『개역개정』: “소득”; 『새번역』: “보람”)을 열망하는 인간 본심의 관계성을 표현한 의도로 보인다.

이미 코헬렛은 자신이 해 아래 모든 수고(노동)를 미워했다(2:18)라고 표명한 것처럼 ‘마음의 열망’(『개역개정』: “마음에 애쓰는 것”)은 ‘헤벨’과 병행되는 ‘바람의 열망’(רַעוֹת רוּחַ, 1:14; 2:11, 17, 26; 4:4, 6; 6:9; 『개역개정』: “바람을 잡으려는/잡는 것”)과 연결된다.³⁴⁾ 그러므로 코헬렛은 곧바로 사람의 온 생애는 슬픔들과 ‘일’(עֲמָלָו)³⁵⁾의 괴로움으로 밤이 되어도 자기 마음을 놓치지 못하니 이것도 ‘헤벨’(2:23)이라고 말한다. 코헬렛은 인간의 강박적이고 과도한 일로 불안해하며, 쉬지 못하는 마음을 짊었다. 이것은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상태의 묘사다. 프레더릭스의 주장처럼 코헬렛이 고생과 안절부절 하지 못하는 마음, 무상함을 묻는 인간의 조건에서 “마음의 샬롬”을 돌이켜보게 한 말이다.³⁶⁾ 마음의 열망을 채우려는 사람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삶을 토로한 것이다. 개럿(Duane Garrett)이 잘 지적한 것처럼, 자신의 일로 소멸되는 사람의 곤경을 묘사한

32)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처럼 취급하는 22절의 의문사 구문(מַה-הוּיָ לְאָדָם)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람에게 무엇이 되겠는가?’ 또는 ‘사람에게 무엇으로 남겠는가?’ 정도로 읽을 수 있다. 이 구문은 ‘이익’이라는 명사를 대체하는 분사형 ‘호혜(הוּיָ)’를 사용했는데, 동사 ‘하바(הוּיָ)’는 후대 미쉬나 히브리어로 알려졌다. 느 6:6에서도 같은 단어가 발견되지만, 창 27:29와 욥 37:6에서도 사용되었다. 물론 같은 동사라도 분사형태는 전도서와 느헤미야 본문에서만 발견된다. Tremper Longman III, *The Book of Ecclesiaste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8), 105를 참조하라.

33) 프레더릭스(Daniel C. Fredericks)는 노동의 유익을 묻는 질문에서 ‘아말’ 앞에 전치사가 사용되는 구문이 3회(1:3; 2:22; 3:9) 사용된 것에 주목했다. 궁극적으로 노동의 유익을 묻는 질문은 그 이익이 즐거움이라는 문맥(2:24; 3:13, 22; 4:9; 5:18-19[17-18]; 8:15; 9:9)과 연결시키려고 사용한 것이다(Daniel C. Fredericks and Daniel J. Estes, *Ecclesiastes & The Song of Songs*, 39). 팩스는 계속성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분사형이지만 ‘이트론’과 구별되지 않음을 밝혔다(Michael V. Fox, *A Time to Tear Down & A Time to Build Up*, 188).

34) C. L. Seow, *Ecclesiastes*, 157. 크렌쇼(James L. Crenshaw)는 “공기로 배불리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보상에 대한 비현실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다. James L. Crenshaw, 『구약지혜문학의 이해』, 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177.

35) “일”로 번역된 ‘인안(עֲמָלָו)’역시 구약에서 몇 번 출현하지 않는 희귀한 단어다(신 26:7; 시 44:24[25]; 전 1:13; 2:23; 사 58:3).

36) Daniel C. Fredericks and Daniel J. Estes, *Ecclesiastes & The Song of Songs*, 100.

말이다. 사람은 진짜가 아닌, 지속적인 가치가 없는 것에도 스스로를 불사르지 않는다.³⁷⁾ 이처럼 코헬렛은 해 아래 인간의 온갖 ‘노력’(노동)의 덧없음과 쓸쓸함을 피하지 않고 대면시킨다. 때문에 그는 인간의 고단함을 쉽게 위로하지 않는 지혜자다. 그의 권면은 위로보다는 현실 직시의 가르침이어서 혹독하게 들린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삶의 갖가지 강박적 불안에서 오는 괴로움의 현실을 역설로 풀어낸다.

4. 코헬렛, 일상과 노동의 기쁨을 외치다(2:24-26)

코헬렛이 노동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묻고 ‘헤벨’로 답하지만 노동 자체를 혐오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과도한 일(노동)과 이득에 대한 집착을 묻는 것이어서 그의 결론은 의외로 단호하고 경쾌하다.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반전이 있다. 그는 ‘삶을 즐겨워하라’는 권고로 수고로운 노동의 대응 방법을 제시한다. 확실히 코헬렛은 역설과 반전을 오가며 삶의 수수께끼를 즐기는 지혜 선생이다. 해 아래 행하는 인류의 온갖 노동을 헛됨, 덧없음, 부조리로 판단했지만, 그의 권고는 삶의 즐거움이다. 그에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여 “삶을 즐겁게 하는”³⁸⁾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는 ‘이것도 내가 보니,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다’(2:24)라고 말한다. ‘...보다 좋은 것은 없다’라는 ‘엔-토브(אין-טוב)’ 구문도³⁹⁾ 코헬렛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다(3:12-14, 22; 5:18-20[17-19]; 8:15).

옥든은 ‘엔-토브’ 양식과 기록을 코헬렛이 창조한 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을 제시한 표현으로 설명했다.⁴⁰⁾ 한마디로 2:24

37) Duane A. Garrett,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ng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1993), 296.

38) 아름다운 문장을 찾으려고 애쓴 코헬렛은(12:10) ‘기쁨을 누리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말을 다양하게 표현했다.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시도일까? ‘기뻐하다’의 뜻인 ‘짜마흐(חַמְּחֵה)’만 사용하지 않고, 2:24의 ‘그의 삶을 즐겁게 하다’(אֶת-חַיָּוֹתָי אֶתְנַפְּשֵׁן טוֹב)처럼 ‘라아(רָאָה)···토브(טוֹב)’(2:1; 3:13; 6:6)의 관용구로 표현한다. 이 말의 직역은 ‘즐거움을 보다’라고 읽히지만, ‘짜마흐’의 동의어다. 이 관용어구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Daniel C. Fredericks and Daniel J. Estes, *Ecclesiastes & The Song of Songs*, 101; A. Schoors, *The Preacher Sought to Find Pleasing Words: A Study of Language of Ecclesiastes* (Leuven: Peeters, 1992), 33을 보라. 더군다나 ‘토브’는 전도서에서 59회나 반복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향해 ‘좋다’라고 평가한 말과 동일한 것으로서 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함의를 지녔다.

39) ‘엔-토브’ 구문은 잠언서의 비교 잠언(예컨대, 잠 16:8; 27:10)과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좀 더 발전적인 형태의 전도서만의 독특한 표현이다.

40) Graham S. Ogden, “Qoheleth’s Use of the ‘Nothing Is Better than’-Form”,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8:3 (1979), 342.

는 삶의 즐거움을 반복적으로 추구하는 후렴구의 첫 번째 선언으로서 (2:24-26; 3:12-14, 22; 5:18-20[17-19]; 8:15; 9:7-10), 역설적으로 ‘헤벨’과 함께 책의 문학적 구조를 형성한다. 한마디로 “즐거움은 삶의 경험 속에서 나쁜 모든 것의 대책이 된다. 그리하여 수고로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즐거워해야 함”⁴¹⁾을 천명한 것이다. 즐거움은 ‘헤벨’ 판단과 함께 반복되기 때문에 자포자기의 쾌락주의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올바른 자각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안적인 결론”이 된다.⁴²⁾ 이것은 먹고 마시는 무익한 탐닉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삶의 건전한 즐거움이다. ⁴³⁾ 이것은 라틴어 경구, 이른바 ‘카르페 디엠’(Carpe Diem, Seize the day)의 효시인 셈이다. 코헬렛은 먹고 마시며 노동에서 즐거워하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옹호하며 비할 바 없는 미덕으로 삼았다. 소박한 삶이 생활양식이 되기를 원하는 코헬렛은 이후 죽음 앞에 있는 인류와 노동의 한계선과 가치를 밝히기도 한다(9:9-10).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2:24하). 코헬렛은 즐거움의 근거를 하나님께 둔다. 그런데 인류가 수고로운 노동 안에서 삶을 즐기지만, 그 수고로움이 솔로몬을 연상시킬 정도의 위대한 업적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코헬렛은 집을 짓고, 각종 과일 나무를 심고, 삼림과 저수지를 만드는(2:4-6) 거대한 건축과 토목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헤벨’이고, 바람을 잡는 것(2:11)이라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희락을 추구했지만, 이것도 헤벨이고, 웃음은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고 기쁨이 성취하는 것은 무엇인가?’(2:1-2)라고 탄식하듯 말했다. 코헬렛은 만족을 위해 온갖 것을 시도했지만, 기쁨을 스스로 얻어 낼 수 없음을 알았다. 또한 자신의 노동 안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지 타인의 노동에 기대어 가시적이고 혁혁한 성공을 달성한 기쁨이 아니다. 코헬렛은 사람이 자기 노동에 근거하여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수사학적인 질문도(2:25) 2:24와 2:26의 문맥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한다. 그러나 2:25는 유달리 까다로운 문법과 어휘 때문에 논쟁적인 구절이다.

『새번역』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는가?

41) C. L. Seow, *Ecclesiastes*, 157.

42) David A. Hubbard, *Mastering the Old Testament: Ecclesiastes, Song of Solomon*, 91.

43) Daniel C. Fredericks and Daniel J. Estes, *Ecclesiastes & The Song of Songs*, 101.

『개역개정』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TNK For who eats and who enjoys but myself?
 NIV for without him, who can eat or find enjoyment?
 ASV For who can eat, or who can have enjoyment, more than I?

חַוֵּץ מִמֶּנִּי	וּמִי יִחַוֵּשׁ	כִּי מִי יֵאָכֵל
c	b	a

위 번역문장들의 차이는 두 방향으로 나뉜다. ‘후썌 밌멘니’(c)의 1인칭 접미어와 전치사의 결합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다. 마소라 본문의 부사구 “나를 제외하고”(TNK)가 아니라 “그분 없이”(NIV; 『새번역』: “그분께서 …않고서야”)라는 번역은 1인칭 접미어를 고대 역본들(콥틱, 시리아 역, 칠십인역)에 따라 3인칭(“그분 없이”)으로 수정하여 읽은 것이다.⁴⁴⁾ 그런데 마소라 본문을 내림차순으로 직역하면, ‘참으로 누가 먹고(a), 누가 즐거워하는가?(b)⁴⁵⁾ 나를 제외하고(c)’라는 말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지 문제가 된다. 하나님인가, 왕을 가장한 저자인가? 문제는 전도서에서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의 목소리는 없다. 시아우의 말대로, 하나님은 단지 3인칭의 ‘엘로힘’(2:24), ‘그 앞에서’(2:26), ‘그가 주셨다’(2:26), ‘하나님 앞에서’(2:26)라는 말로만 언급될 뿐이고, 1인칭의 목소리는 저자의 목소리뿐이다.⁴⁶⁾

이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실마리는 페니키아어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후드(M. Dahood)와 와이틀리(C. F. Whitely)는 ‘밌멘니(חַוֵּץ מִמֶּנִּי)’의 1인칭 접미어 ‘요드’가 페니키아어의 3인칭 남성 단수 접미어(‘yu’)와 가깝다고 주장한다.⁴⁷⁾ 알파벳 ‘요드’는 히브리말에서 3인칭 남성

44) C. L. Seow, *Ecclesiastes*, 140. 다수의 히브리어 사본들은 제외된다.

45) 이뿐 아니라 어휘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 ‘야후쉬(חַוֵּשׁ)’와 ‘후썌(חַוֵּץ)’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둘 다 의문사 ‘누구인가?’와 연결되는 평행적 구성과 소리의 언어유희는 있으나 해석자들에게 모호한 언어의 의미풀이는 곤혹스럽다. 마소라 본문 이외의 여러 고대 히브리어 사본들이나 칠십인역, 시리아 역 등의 고대 역본들은 동사구 ‘후쉬’를 ‘마실 것이다’로 번역했다. 이것은 ‘누가 먹는가?’(a)와 ‘야후쉬’(b)의 평행 관계, 그리고 24절의 먹고 마시는 것의 문맥을 고려한 번역이다. 이것은 히브리어 어근 ‘후쉬(חַוֵּשׁ)’를 고쳐 읽은 것인데, 이 어휘가 후대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느끼다”, “경험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현대 주석가들은 부차적으로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로부터 파생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인데, 다른 본문에서(욥 20:2) 고통의 감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입증되기 때문이다(C. L. Seow, *Ecclesiastes*, 139-140). 우가릿어와 아카드어의 어근에 따른 여러 논의들 때문에 의미의 불확정성은 여전히 남는다.

46) C. L. Seow, *Ecclesiastes*, 140.

47) M. Dahood, “The Phoenician Background of Qoheleth”, *Bibliotheca Sacra* 47 (1966), 269; C. F. Whitely, *Koheleth: His Language and Thought*, BZAW 148 (Berlin/New York: de Gruyter, 1979), 29; C. L. Seow, *Ecclesiastes*, 141에서 재인용.

단수로도 사용된다.⁴⁸⁾ 결국 대명사 접미어 ‘요드’를 1인칭으로 읽느냐, 3인칭으로 읽느냐의 문제다. 둘의 가능성을 수렴한다면, 최선의 독법은 무엇일까? 독자가 언어의 비밀의 방에 초대되었다면, 인접 문맥의 “하나님”을 고려하여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접미어로 읽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것을 적용하면 ‘그분 없이 누가 먹으며, 누가 즐거워하는가?’라고 읽을 수 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을 강조하는 수사학적인 문장이 된다.

고대 역본들처럼 ‘요드’를 3인칭 접미어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말하는 이어지는 짧은 일화(2:26)와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사람’(גִּבּוֹרֵי מִדְּמָה)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 지식, 기쁨을 주신다. 반면에 다른 부류는 ‘죄인’(שׁוֹטֵט)이다. 코헬렛은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모아 축적하는 노고(עֲמָל)을⁴⁹⁾ 주시고,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2:26)라고 말한다. 코헬렛에게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분이지만,⁵⁰⁾ 삶에서 지혜, 지식, 기쁨으로 상징되는 좋은 것을 받는 자와 노고만 받는 자를 구분하시는 분으로 소개된다. 바돌로뮤(C. G. Bartholomew)는 이 세 가지(지혜, 지식, 기쁨)를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과 구분하면서 동시에 연결시켜 피조물인 인류의 영광스러운 비전의 표명으로 읽었다.⁵¹⁾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먹지도 모으지도 못한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코헬렛은 지혜, 지식, 기쁨이 인간의 성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도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왕상 3:9-12). 잠언의 지혜자도 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밝힌다(잠 2:6). 반면에 무엇이든 주시는 하나님은 죄인이 수고로이 모아 축적한 것들을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노고만 있을 뿐 즐거움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이 적절히 이행되는 하나님의 정의 실현이다.

48) C. L. Seow, *Ecclesiastes*, 141. 문제는 전도서에서 3인칭은 ‘바브’ 또는 ‘홀렘 바브’로 표현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긴 하다. 시아우는 ‘후쓰 민’(c)이 관용어구로서 “...외에는”, “...이 아니면”이라는 뜻의 후대 히브리어의 증거가 된다고 설명한다.

49) 노고, 수고, 일에 해당하는 ‘인얀’ 역시 전도서에서만 발견되는 단어로써 이곳을 제외하고 1:13의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에서 사용된 단어다. 결과적으로 노동, 수고에 상응하는 어휘 ‘아말’과 동의어인 셈이다.

50) ‘토브’와 ‘호테(שׁוֹטֵט)’가 대조적인 쌍(선인과 죄인)으로서 사용된 예(9:2) 외에도 9:18에서는 ‘호테’가 선과 지혜의 대조적인 쌍으로 선을 파괴하는 문맥에서 사용된다. 10:4에서는 “공손함”과 대립되는 “허물”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51) Craig G. Bartholomew, *Ecclesiastes*,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153.

희망이다.

그러나 코헬렛은 또다시 희망을 뒤집는다.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 ‘이 것도 헤벨이고 바람 잡는 것’(2:26d)⁵²⁾이라고 선언한다. 코헬렛의 말은 까다롭다. 그렇더라도 와이브레이(R. N. Whybray)의 의견처럼 온전한 진리를 아우르기 위해서 대조되는 양방향 모두를 말하는 것은 절름발이 논쟁이 되지 않는 방법이다.⁵³⁾ 진리는 두 개의 대립되는 진술들을 통해 표현되기 마련이다. 그러면 코헬렛이 결론에 이르러 다시 모호하고 다중적인 말 ‘이 것도 헤벨이다’라는 판단을 먹고 마시며 노동의 즐거움을 촉구하는 조언 후에 마무리 발언으로 내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코헬렛은 윤리적 행위와 보상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신비, 곧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행복이 불가능하다거나 정의 실행이 좌절되는 염세주의적인 판단이 아니다. 코헬렛은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누가 말해줄 수 있는가’(6:12)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선포이며, ‘해 아래’ 신앙적인 현실주의자의 선언이다.

5. 나가는 글: 전도서의 일상과 노동의 신학적 의미

하늘 위가 아니라 하늘 아래 일상과 노동의 문제를 논하는 전도서가 이른바 ‘땅의 신학’ 또는 ‘아래로부터의 신학’으로 불리는 것은 자연스럽다. 특히 코헬렛이 노동과 이익의 문제를 다룬 단락들 중에서 2:18-26의 본문은 전도서의 모토 ‘헤벨’ 판단(1:2; 12:8)과 궤를 같이한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몸을 움직여 일하거나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한 육체적 혹은 정신적 노력과 수고가 노동이다. 인류는 노동을 벗어나 살 수 없다. 코헬렛은 해 아래 사람이 노동하여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1:3; 2:22), 수고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공정한 몫으로 분배되지 않는 것에 격한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2:18-21). 이 때문에 코헬렛은 거듭 세상의 온갖

52) 두 부류 사람에 대한 본문의 구문관계에서 정관사로 표시된 주어 ‘엘로힘’(c)이 b에서는 생략되었고, a에서는 3인칭 대명 접미어 형태의 ‘역 지시조용’(cataphora) 유형의 구문이다.

כִּי לְאָדָם שְׂטוּב לִפְנֵי נָתַן חֲכָמָה וְרַעַת וְשִׁמְחָה	26a
וְלַחֹטֵא נָתַן עֵינָן לְאִסוּף וְלִכְנוּס	b
לְתַת לְטוֹב לִפְנֵי הָאֱלֹהִים	c
בְּסִדְוָה הַבֵּל וְרַעַת רוּחַ	d

53) R. N. Whybray, *Ecclesiastes*, 65.

수고와 괴로움과 슬픔뿐인 인생을 살피고, 모든 수고를 헛것(‘헤벨’)이라며 과격한 솔직함을 드러냈다(2:22). 동시에 그는 강박적인 일로 불안해하고, 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짊어 주었다(2:23). 이러한 코헬렛의 생각을 로 핑크(N. Lohfink)는 한 문장으로 잘 정리했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대하는 대로 원인과 결과, 그리고 도덕적인 원칙들에 의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신다.”⁵⁴⁾ 코헬렛은 열망을 채우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자기 일로 소멸되지 않도록, 진짜가 아닌 것에 자신을 불사르지 않도록 성찰의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행운과 불행은 어디든 뿌려질 수 있지만 ‘순간’(‘헤벨’)이다. 코헬렛은 해 아래서 온갖 노동과 이익을 ‘헤벨’이라고 판단하며, 먹고 마시며 노동으로 기뻐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사소한 것의 가치를 역설했다. 왜냐하면 코헬렛에게 일과 즐거움의 원천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삶의 기쁨을 옹호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 선생 코헬렛의 고언(2:24-26; 3:12-13, 21-22; 5:18-20[17-19]; 8:15; 9:7-10; 11:7-10)은 온갖 수고와 열정 사이를 비집고 ‘덧없음’(‘헤벨’)이 자리 잡은 현실을 가로지르는 최고 가치다. 림브루그(J. Limbrug)의 말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깊은 간격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실증적인 사실들 안에서 간격이 메워진다.”⁵⁵⁾ 하나님은 깊은 심연처럼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의 부양자”⁵⁶⁾이며, 기쁨은 무엇이든 주시는 하나님에게 근거한다. 그리하여 먹고 마시며 일하는 단순한 일상과 즐거움은 내일이 아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마 6:11)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통한다.

현대인은 더 많음과 높음을 성공의 지렛대로 삼지만, 코헬렛이 말하는 노동의 유익은 부자가 되거나 감춰진 미래의 장밋빛 성공이 아니므로 과도한 노동과 일중독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전도서는 소박한 즐거움을 위한 노동의 건전성과 가치를 묻는 신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코헬렛은 호화로움을 추구하는 일의 동기를 성찰하게 하고, 먹고 마시는 일상의 필수요소에 만족하는 것을 옹호한 것이다. 한마디로 더 많은 이득을 목표로 “자기를 ‘숭배’하고 자아의 요구에 끌려 다니지”⁵⁷⁾ 않도록 정곡을 찌른 가르침이다.

54) Norbert Lohfink, *Qoheleth* (Minneapolis: Fortress, 2003), 57.

55) James Limbrug, *Encountering Ecclesiastes: A Book for Our Time* (Grand Rapids: Eerdmans, 2006), 34.

56) Daniel J. Treier, *Proverbs & Ecclesiastes* (Grand Rapids: Brazos, 2011), 148.

57) Ben Witherington III, 『평일의 예배, 노동』, 오찬규 역 (서울: 넥서스, 2016), 246. 워더링턴(Ben Witherington III)은 노동을 신앙처럼 받드는 현대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요구대로 생활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때 일어나는 행동이 자기 숭배라고 설명한다.

선물로 받은 하루를 먹고 마시고 노동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고된 노동의 해독제 이상이며, 인류를 향한 신적인 명령이며 부름이다. 이처럼 소박한 일상과 기쁨으로의 부름은 고대 이스라엘인들보다 ‘지금 여기’ 우리에게 더 도전적이다. 엄청난 양의 먹거리와 소비 경향, 거대 자본 시스템이 작동하는 현대사회에서 더 많음과 높음을 위해 경쟁의 벽을 허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건전한 노동과 일상의 관점을 제시한다. 코헬렛은 노동의 이익을 묻고 ‘헤벨’로 답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주권적 행위와 내일을 모르는 인간의 무지를 기꺼이 수용한 겸손이다. 그러므로 ‘헤벨’(부조리하고, 수수께끼 같고, 덧없는)의 삶에서, 먹고 마시며 노동으로 즐거워하는 가장 소박하지만 심원한 기쁨의 역설은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넘어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촉진제가 된다. 이것은 일의 성취와 성과주의에 목매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소박한 일상의 기쁨을 망각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가르침이요, 코헬렛이 제시하는 일상과 노동의 관점이다.

<주제어>(Keywords)

전도서, 코헬렛, 노동, 기쁨, 헤벨, 일상.

Qoheleth, Labor, Joy, Hebel, Daily Life, Profit, Eating and drinking.

(투고 일자: 2018년 1월 25일, 심사 일자: 2018년 3월 12일, 게재 확정 일자: 2018년 3월 23일)

<참고문헌>(References)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 김순영, 『열셋말로 읽는 전도서』, 한국구약총서 20, 용인: 프리칭아카데미, 2011.
- 차준희, “코헬렛은 안티페미니스트인가: 전도서 7장 25-29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0:2 (2014), 127-153.
- 최창모, “전도서의 수사적 질문과 헤벨의 상징적 기능에 관한 연구”, 『신학사상』 104 (1999), 112-145.
- 현창학, 『구약 지혜서 연구』, 수원: 합신대학원 출판부, 2009.
- Crenshaw, James L., 『구약지혜문학의 이해』, 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Murphy, Roland E., 『전도서』, WBC 성경주석 23A, 김귀탁 역, 서울: 솔로몬, 2008; *Ecclesiastes*, WBC 23A, Nashville: Thomas Nelson, 1992.
- Witherigton III, Ben, 『평일의 예배, 노동』, 오찬규 역, 서울: 넥서스, 2016; *Work: A Kingdom Perspective on Labor*, Grand Rapids: Eerdmans, 2011.
- Ellul, J., 『존재의 이유』, 박건택 역, 서울: 규장, 2005; *La Raison D'être: Méditation sur l'Ecclésiaste*, Paris: Seuil, 1987.
- Hurvitz, Avi 외, 『성서 시대와 성서 이후 시대의 히브리어 연구』, 박미섭 역, 서울: 한들, 1999.
- Bartholomew, Craig G., *Ecclesiastes*,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 Bartholomew, Craig G., *Reading Ecclesiastes: Old Testament Exegesis and Hermeneutical Theory*, Analecta Biblica 139, Rom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8.
- Crenshaw, James L., *Ecclesiastes*, London: SCM, 1988.
- Dor-shave, Ethan, “Ecclesiastes, Fleeting and Timeless”, *Jewish Bible Quarterly* 36 (2008), 211-221.
- Fredericks, Daniel C. and Estes, Daniel J., *Ecclesiastes & The Song of Songs*, Apollos Old Testament Commentary, Nottingham: Apollos, 2010.
- Fox, Michael V., *A Time to Tear Down & A Time to Build Up*, Grand Rapids: Eerdmans, 1999.
- Garrett, Duane A.,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ng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1993.
- Goshen-Gottstein, M., “Tanakh Theology: The Religion of the Old Testament and the Place of Jewish Biblical Theology”, P. D. Miller, P. D. Hanson and S. D. McBride, eds., *Ancient Israelite Religion: Essays in Honor of Frank*

- Moore Cross, Philadelphia: Fortress, 1987.
- Hubbard, David A., *Mastering the Old Testament: Ecclesiastes, Song of Solomon*, London: Word Publishing, 1991.
- Johnson, Raymond E., “The Rhetorical Question as A Literary Device in Ecclesiastes”, Ph.D. Dissertation,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86.
- Krüger, Tomas, *Qoheleth*, Hermeneia, O. C. Dean Jr., trans., Minneapolis: Fortress, 2004.
- Limbrug, James, *Encountering Ecclesiastes: A Book for Our Time*, Grand Rapids: Eerdmans, 2006.
- Longman III, Tremper, *The Book of Ecclesiastes*,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8.
- Lohfink, Norbert, *Qoheleth*, Minneapolis: Fortress, 2003.
- Ogden, Graham S., *Qoheleth*, Sheffield: JSOT, 1987.
- Ogden, Graham S., “Qoheleth’s Use of the ‘Nothing Is Better than’-Form”, *Th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8:3 (1979), 339-350.
- Perdue, Leo G., *Wisdom Literature: A Theological History*,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2007.
- Perdue, Leo G., *Wisdom and Creation: The Theology of Wisdom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1994.
- Pinker, Aron, “How should we understand Ecclesiastes 2:26?”, *Jewish Bible Quarterly* 38 (2010), 219-229.
- Schoors, A., *The Preacher Sought to Find Pleasing Words: A Study of Language of Ecclesiastes*, Leuven: Peeters, 1992.
- Seow, C. L., *Ecclesiastes*, AB 18C, New York: Doubleday, 1997.
- Treier, Daniel J., *Proverbs & Ecclesiastes*, Grand Rapids: Brazos, 2011.
- Whybray, R. N., *Ecclesiastes*, OTG,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7.

<Abstract>

**A Viewpoint on Daily Life and Labor in the Book of Qoheleth:
Ecclesiastes 2:18-26**

Soon Young Kim
(Seoul Hanyoung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mphasis of daily life and labor in the book of Qoheleth. Qoheleth clearly reveals an attitude of concern about the earthly and material life. In order to discuss the issue of humankind's labor, Qoheleth begins his discourse with a rhetorical question, 'What profit does man have in his labor under the sun? (1:3; cf. 2:22)' This question is summarized as the recurring word 'amal (עָמַל)' that refers to all human labor and effort. It is a unique word to Qoheleth and is interrelated with the superlative expression 'hebel' judgement (הֶבֶל הַבְּלָיִם, 1:2; 12:8), which constitutes the frame of the book. In this broad context, Qoheleth not only hates life merely, but also expresses frustration toward it by raising questions about all kinds of 'labor' (עָמַל) and 'profit' (יִתְרוֹן) in human life. This is because of the reality where profits of hard work are passed onto and controlled by others who did not labor for it. Thus this too is 'hebel' (2:18-21). Nevertheless, he declares again and again using the phrase 'en-tob (אֵין-טוֹב)' phrase (2:24), that the best way to value life is to eat, drink and be joyful in labor. Each time the value of human labor is questioned (which constitutes the literary macrostructure of Qoheleth), the counsel to enjoy life comes back as the primary response (2:24-26; 3:12-13, 21-22; 5:18-20[17-19]; 8:15; 9:7-10; 11:7-10). Consequently, Qoheleth's answer to the initial question about advantages to hard work is simple joy in receiving from God, not in any self-generated affluence (2:24). The book of Qoheleth offers a paradoxical and glorious vision of human life, in the profundity of experiencing joy in the simplest of experience. The simple joy of everyday life is a sacred call; it is the answer to living amidst the contradictions and incomprehensible things that arise from all the hard work of mankind.